

예수님을 선물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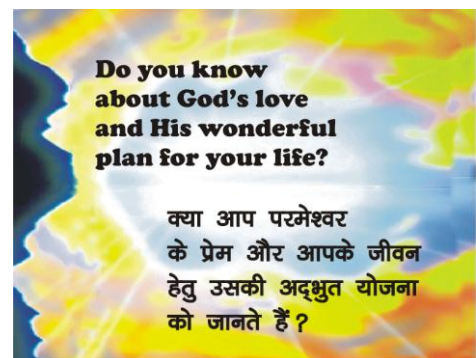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9월 10일 프라산나와 조티가 안드라 프라데시의 키시킨다라는 한 동네를 방문했었습니다. 프라산나는 간호원으로 일하다가 안드라 프라데시의 여성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동네 가운데 사람들 약 150명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어린 아이 하나가 누워있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울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알아보았더니 동네 사람들의 죄사함과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아이를 죽여 제사를 지내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프라산나가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아이를 죽일 필요가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동네의 지도자인 힌두교 제사장 뱅카트가 네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정신 이상인 아이의 엄마를 고칠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만약 그 여자를 고치면 힌두교 성전을 허물고 너희 신인 예수님을 위한 성전을 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프라산나와 조티가 기도한지 15분이 지나고 나서 정말 그 귀신 들린 여자는 정상적이 되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날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아이도 살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25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동네 책임자는 약속대로 힌두교 사원을 허물고 교회를 짓도록 했습니다. 프라산나가 그 동네를 방문하지 않았다면 아이도 죽었고 그 아이의 어머니는 귀신 들린 채로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5만 동네를 방문하여 7백만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적어도 1만 동네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대로 잃어 버린 자들을 찾아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 전하고 나서 전도 소책자를 주어서 신앙 생활에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1달러(1천원)에 25개의 전도 책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7백만 개의 전도 책자를 만들어 전도하는데는 약 30만불(3억원)이 듭니다. 7백만 가정에 복음을 전하면 적어도 3천 5백만명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을 선물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전도 책자 헌금을 보내실 때는, 미국에서는 Global Assistance Partner(세계 협력 선교회)로 보내 주십시오: 체크는 G.A.P 이름으로 써서, 다음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G.A.P. 1232 N. Palm St. La Habra. CA 90631. USA.

한국에서는: 외환은행, 예금주: 겅 인터내셔널, 계좌번호: 630-008188-731